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 가치관과 행동에 관한 연구 - 사회계층 차이와 세대 차이를 중심으로 -

손지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세대별 재무관리 가치관이 어떠한지, 재무관리 가치관이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지는지, 혹은 세대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재무관리 가치관 척도와 행동 척도는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실시한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 조사 내의 8문항과 9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요인분석, 평균, 일원·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Varimax 회전 방법을 이용하여 아이겐 값이 1.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한 결과, 재무관리 가치관은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1은 현재지향 재무관리 가치관, 요인2는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으로 명명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의 현재지향은 보통 수준이었고, 미래지향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일원·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사회계층 차이와 세대 차이에 따른 재무관리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사회계층간 미래지향의 차이와 세대간 현재·미래지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재무관리 가치관에 대한 사회계층과 세대 사이의 상호작용은 없었으며, 세대 차이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과 세대간 재무관리행동 수준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과 “에코세대”를 소비자 재무관리 분야의 취약계층으로 선정하였다. 저소득층과 에코세대는 재무관리행동 수준이 낮은 소비자집단으로, 저소득층은 미래지향 가치관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에코세대는 현재지향 가치관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 핵심단어: 재무관리 가치관, 재무관리 행동, 사회계층, 세대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E-mail: json@kca.go.kr, 연락처: 010-4709-8303

I. 서론

소비자 재무관리는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전문 분야로, 소득과 지출관리,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과 투자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와 상속 등의 하위영역을 포함한다(최현자, 2010). 본 연구는 이들 하위영역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관리 가치관, 그리고 소비자의 실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관리 행동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재무관리 가치관과 실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계층 차이와 세대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계층별 재무관리 가치관 차이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들은 사회계층별로 소비와 저축, 투자에 관한 가치관이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Zimbardo & Boyd (2008) 등은 중류층의 가치관이 하류층보다 미래지향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Payne(2005)은 하류층에게 있어서 돈은 소비의 대상, 중류층에게 돈은 관리의 대상인 반면, 상류층에게 돈은 보존, 또는 투자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아직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이에 본고는 재무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가치관 차이와 행동 차이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소비자분과에서는 세대간 소비 가치관 차이에 관한 연구(김우성·허은정, 2007)가 수행되어 왔으나, 재무관리 가치관 차이에 관한 분석은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세대별 가치관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세대차이가 존재한다는 입장, 세대차이가 부분적으로 있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입장, 세대차는 환상이며 실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Bengston, 1975). Inglehart(1990)는 ‘사회화 가설(socialization hypothesis)’에서 청소년기와 같은 정체성, 관념이 형성되는 시기의 공통 경험에 대하여 일종의 결정화가 일어나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세대간 가치관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Mannheim(1952)도 청소년기 경험이 그 이후의 경험들의 토대로 작용하며, 누적된 경험에 의해 의식이 형성되어 세대 차이가 초래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관리과정에서 소비자가 현재지향과 미래지향의 가치관을 추구함에 있어서의 차이와 재무관리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수준의 차이를 세대차이의 측면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실시한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 조사 결과이며, 인구학적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에코세대의 4개 집단에 관한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재무스트레스(이지혜·주소현, 2013)와 화폐태도(린쉬에·조향숙·김시월, 2014), 조절초점(조수현, 2012), 위험감수도(허경옥·박귀영, 2013), 경제적 불안(정서린, 장윤옥, 2007; 김미린·홍은실, 2010)과 재무관리행동의 관계들이 실증적으로 연구된 바 있지만 그 와중에도 재무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인바, 국내에서 사회계층 차이나

세대 차이에 따른 재무관리 가치관의 차이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또한 지금까지 소비자 재무관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학생(김효정, 2005; 이지혜·주소현, 2013; 린쉬에·조향숙·김시월, 2014)이나 주부(계선자·정미선, 2007)의 재무관리행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으므로, 다양한 세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본 연구 결과는 보다 일반적인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고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재무교육·상담이 주목해야 하는 재무관리 분야 취약계층의 성격을 규정할 것이며, 이들 취약계층 집단의 특성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2.1 재무관리 가치관의 유형과 사회계층별 차이

사회계층별 소비자인식의 차이는 그동안 여러 학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온 연구 주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소비자의 가치 지향이 사회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고해 왔다(함인희 외, 2001). 소비자학 분야에서도 사회계층별 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소비행동과 소비문화에 있어서의 특징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 집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이성림, 2006; 박상미·허경옥, 2012). 소비자학 분야에서 사회계층별 재무관리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조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별 시간관에 관한 Zimbardo와 Boyd(2008)의 논의, 그리고 사회계층별 돈에 대한 가치관에 관한 Payne(2005)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계층별 재무관리 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먼저 Zimbardo와 Boyd는 저서 <타임 패러독스: 시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소비자의 시간관을 과거지향적, 현재지향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시간관은 다시 과거긍정적 시간관, 과거부정적 시간관(이상 과거지향적 시간관), 현재쾌락적 시간관, 현재숙명론적 시간관(이상 현재지향적 시간관), 미래지향적 시간관, 초월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이상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여섯 가지 종류로 세분할 수 있다. 짐바르도와 보이드는 과거긍정적, 미래지향적, 현재쾌락적 시간관 점수가 높고, 과거부정적 시간관과 현재 숙명론적 시간관 점수가 낮으면 시간관이 균형잡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개인이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시간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대신 Zimbardo와 Boyd의 시간관 분류를 가계 재무관리적 측면에 적용하여, 이들이 주창한 6가지 시간관 가운데 “현재쾌락적 시간관” 과 “미래지향적 시간관” 에 주목할 것이다.

Zimbardo와 Boyd(2008)가 주창한 “현재쾌락적 시간관” 은 즉각적인 즐거움과 자극을 추구하

는 경향이며,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계획에 따라 살고 자기절제에 능한 경향이다. 따라서 현재 쾌락적 시간관과 미래지향적 시간관의 두 가지 개념은 Thaler와 Shefrin(1981)이 주창한 자기통제 이론(An economic theory of self-control) 내 “실행자”의 개념, 그리고 “계획자”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자기통제 이론은 한 개인의 내면에 실행자(Doer)와 계획자(planner)의 상반된 두 자아가 혼재하며, 이 두 자아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간여하여 유혹에 저항할 것인지 굴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두 자아가 충돌함으로써 자기통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 계획자는 인생 전반에 걸친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계획을 세우는 자아의 한 측면이며, 실행자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자아의 한 측면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내면에서 계획자로서의 자아가 강하게 작용할 경우, 미래지향적 시간관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며, 실행자로서의 자아가 강하게 작용할 경우, 현재지향적 시간관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Zimbardo와 Boyd(2008)는 한 개인의 시간관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현재쾌락적인 것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강한 소비자의 경우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생활한다는 측면에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즐거움을 자주 포기하기에 여유를 즐길 수 없으므로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무엇이 더 나은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재무관리의 과정에서 단기(2~5년)부터 장기(15~20년)에 이르는 재무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고자 할 때에는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 어느 시점의 만족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요구된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먼 미래의 큰 만족보다 당장 가능한 작은 만족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쌍곡형 할인율(hyperbolic discount rate)”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Zimbardo와 Boyd (2008)는 이처럼 눈앞의 작은 만족을 쫓고자 하는 인간 본성을 거스르고 이상향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작은 만족을 유예할 수 있는 미래지향성이 중류층의 특징적인 가치관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Zimbardo와 Boyd (2008)는 개인이 성취에 대한 야망과 필요를 느끼면 일과 저축,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계획을 중요시하는 미래지향성이 발동하며, 이와 같은 시간관의 미래지향성은 중류계층에 소속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언급하였다. 반면, 현재지향성은 하류층의 특징적인 시간관으로 Banfield(1974)는 하류층 사람들이 병적일 정도로 현재지향적이어서, 현재 한 노력의 대가를 미래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과제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을 완전하게 발달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이 없으면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갖지 못하므로, 결국 하류층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Zimbardo와 Boyd (2008)에서는 상류층의 시간관에 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상류층 가운데 상속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관이 미래지향적인 것이며, 운동선수, 연예인, 자수성가형 기업가 등 벼락부자들은 시간관이 현재지향적인 것으로 예측하였다.

사회계층과 재무관리 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또 다른 논의는 Payne(2005)에서 살펴볼 수 있다. Payne은 어떤 사람이 지능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류층에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류층에 머무르는 까닭은 자신에게 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하류층이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다는 측면이라고 하였다. 하류층에게 있어서 돈은 소비의 대상, 중류층에게 돈은 관리의 대상인 반면, 상류층에게 돈은 보존, 또는 투자의 대상이라는 것이 Payne의 주장이다. Zimbardo와 Boyd(2008)와 마찬가지로 Payne도 하류층이 사회계층의 상향 이동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즉, 하류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시간관의 미래지향성을 획득하여 되고 싶은 목표가 생겼을 때, 중류층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계층별로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관에 차이가 있으며, 중류층은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강하고, 하류층은 현재쾌락적 시간관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쾌락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은 소비자가 재무목표를 세우고, 돈을 관리하는 등 개인적으로 재무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소비자의 소속 사회계층에 따라 재무관리 가치관과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재무관리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 가치관의 차이를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변수로 사회계층 변수와 함께 세대 변수에 주목하고자 한다. 세대란, 역사적 경험의 동질성, 인구학적 연령집단(age cohort), 문화적·행태적 특성 등에 기인하여 비슷한 특성을 갖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박재홍, 2009). 본 연구에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세대 개념 가운데에서도 한국사회 내의 성인부모-성인 자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재무관리 가치관을 대치하여 살펴 보되, 베이비붐 세대의 윗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사이 세대인 X세대를 비교에 활용할 것이다.

세대 간 가치관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의 결과들은 세대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 세대간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결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Bengston, 1975; 정명숙·김혜리, 2005 재인용). 세대 차이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한국 사회의 경우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각 세대 간 삶의 경험 및 성장 배경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지향에 있어서도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박영균·박영신·김의철, 2010). 예를 들어 베이비붐세대와 Y세대*의 소비관련 가치관을

*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X세대 이후의 집단을 지칭하며, 약 1980년~1999 사이 출생자이다(김우성·허은정, 2007).

비교한 김우성·허은정(2007)에서는 베이비붐세대가 절약, 검소한 소비, 계획적 소비를 중시하는 반면, 에코세대는 쇼핑 자체를 즐기는 감각적/쾌락적 소비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그 재무관리 가치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는 인구학적 연령집단에 근거하여 정의된 세대 개념으로,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695만명, 에코세대는 954만명에 달한다. 두 세대를 합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의 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살펴볼 베이비붐(baby boom)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으로 유지된 1955-1963년 사이의 9년 동안 출생한 코호트(2015년 기준 만 52-60세)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며 향후 은퇴 인구로의 전환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대응하는 에코(echo)세대는 베이비붐 현상이 약 20-30년 후 2세 출산의 메아리(echo)로 작용한다는 관점 하에 정의되었으며, 1979-1992년 사이의 14년 동안 출생한 코호트(2015년 기준 23-36세)를 지칭한다(통계청, 2012).

개인재무관리의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특성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부모 부양을 위한 지출과 자녀를 양육·교육·결혼시키기 위한 지출로 인해 본인의 은퇴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 현황을 분석한 백은영(2011)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79%가 어떤 방식으로든 은퇴준비를 하고 있으며, 주된 은퇴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39%),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24%), 개인연금(19%), 부동산(6%)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준비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급여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세대별 소득이전적 측면에서 사회적 이전의 최대 수혜계층이 될 가능성도 있다(김용하·임성은, 2011).

이제 사회에 진입을 시작한 청년층에 해당하는 에코세대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부담과 수혜의 측면에서 베이비붐세대와 이해 차이가 뚜렷하며, 경제 상황으로 인해 취직, 결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삼포세대”, “88만원 세대” 등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베이비붐 세대와 대비되는 에코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높은 교육수준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내 에코세대의 대졸자 비중은 약 66.4%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손지연, 2015). 그러나 경기 악화로 인해 좋은 일자리의 수가 감소하면서 대학교육의 보상이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에코세대는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라채린·이현경, 2013). 또한 일자리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에코세대의 혼인을 감소와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박경숙 외, 2013). 국토연구원의 최근 분석결과에 따르면 에코세대 가운데 기혼자 비중은 36.0%로 평균 혼인 연령의 상승에 따라 에코세대의 절반 이상이 미혼 상태에 있으며, 교육과 직장 문제로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부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기찬, 2013).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재무관리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부채 문제와 소

득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가계동향조사와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통계청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세대별 가계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한 이은희 외(2015)에서는 에코세대의 경우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권 부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대비 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에코세대의 경우 여가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 수준이 높은 반면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원활한 부채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활용하여 에코세대의 평균 소득을 분석한 손지연(2015)에서, 하위 중산층에 해당하는 월 평균 가계소득 150만원 이상 350만원 소득계층의 비중은 에코세대에서 48.3%, 베이비붐 세대에서 36.8%로, 에코세대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소득계층의 분화가 덜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같은 연구에서 두 세대별 소득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월 평균 가계소득이 75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계의 비중은 베이비붐세대에서 13.6%로 에코세대의 4.5%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에서 소득양극화가 관찰된다는 이은희 외(2015)의 견해와 일치한다. 손지연(2015)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465.93만원으로 에코세대의 월 평균 가계소득 401.68만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가계소득을 조정할 경우, 베이비붐세대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33.73만원, 에코세대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44.76만원으로, 세대 간 소득의 유의미한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간 계층귀속의식에 있어서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두 세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등 세대 간 계층귀속의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에코세대의 취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층귀속의식이 두 세대간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박경숙 외(2013)은 두 세대의 가족관계, 즉 부모-자녀 관계가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세대 갈등의 완충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할 때, 부모-자식 세대인 두 세대는 재무관리 가치관에 있어서 다소간의 세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 검토 단계에서 기성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와 신세대인 에코세대가 재무관리 가치관의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차별성을 나타낼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연구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

가설 2. 소비자의 소속 세대에 따라 재무관리 가치관과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소비자의 재무관리 가치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계층 차이와 세대 차이에 따른 소비자 재무관리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사회계층 차이와 세대 차이 가운데 소비자의 재무관리 가치관에 더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사회계층 차이와 세대 차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비자 재무관리 분야의 취약계층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집단 각각의 재무관리가치관과 재무관리행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3.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의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는 우리나라 성인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거래역량, 소비자시민역량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인 2014년 조사결과는 1:1 면접을 활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3 변수의 측정방법

먼저 재무관리 가치관은 “2014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내 재무관리 태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9문항 가운데 8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표 2〉 참조). 해당 문항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수집된 문항 풀 가운데 두 차례 이상의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은 같은 조사에서 재무관리 실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9문항을 사용하였다(〈표 8〉 참조). 해당 문항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수집된 문항 풀을 바탕으로 세 차례 이상의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정된 것이다(손지연·이경아, 2014).

OECD 기준의 소득계층은 조사년도(2014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를 저소득계층, 50~150% 분위를 중간소득계층, 150% 이상을 고소득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세대는 인구학적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이전 세대(1955~1964년 출생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 X세대(1964~1978년 출생자), 에코세대(1979~1994년 출생자)로 구분하였다.

3.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평균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고용상태, 소득수준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성비,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세대간 차이가 없었다. 세대 가운데에서도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인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가 격차를 보이는 변수로는 교육수준과 혼인상태고용상태가 있었다. 에코세대의 대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63.2%로,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졸 이상 학력 보유자 비율 23.9%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반면, 에코세대 내 기혼자 비율은 27.7%로, 베이비붐 세대 내 기혼자 비율 96.5%에 비해 낮았다. 고용상태를 보면, 에코세대 내 임금근로자 비중은 54.4%, 자영업자 비중은 9.1%로,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였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중은 33.7%, 자영업자 비중은 43.6로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더 높았다. 평균 소득에 대한 F test 값은 62.489(P<.001)이었으며, Duncan 테스트 결과, 두 세대간 평균 소득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0)

특성		베이비붐 이전 세대 (1955-1964)	베이비붐 세대 (1955-1963)	X세대 (1964-1978)	에코 세대 (1979-1994)
N		213	172	330	285
성별 (%)	남	92 (43.2)	88 (51.2)	164 (49.7)	149 (52.3)
	여	121 (56.8)	84 (48.8)	166 (50.3)	136 (47.7)
평균연령(2014년 기준)		64.7	54.4	43.5	27.6
교육수준 (%)	고졸 이하	193 (90.6)	113 (65.7)	113 (34.2)	40 (14.0)
	전문대졸	8 (3.8)	18 (10.5)	75 (22.7)	65 (22.8)
	대졸	10 (4.7)	40 (23.3)	137 (41.5)	175 (61.4)
	대학원 이상	2 (0.9)	1 (0.6)	5 (1.5)	5 (1.8)
혼인상태 (%)	미혼자	-	2 (1.2)	17 (5.2)	205 (71.9)
	유배우자	202 (94.8)	166 (96.5)	311 (94.2)	79 (27.7)
	기타	11 (5.2)	4 (2.3)	2 (0.6)	1 (0.4)
고용상태 (%)	임금근로자	35 (16.4)	58 (33.7)	154 (46.7)	155 (54.4)
	자영업자	69 (32.4)	75 (43.6)	106 (32.1)	26 (9.1)
	무직*	109 (51.2)	39 (22.7)	70 (21.2)	104 (36.5)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42 (19.7)	37 (21.5)	66 (20.0)	62 (21.8)
	광역시	51 (23.9)	47 (27.3)	80 (24.2)	78 (27.4)
	기타 소도시	120 (56.3)	88 (51.2)	184 (55.8)	145 (50.9)
소득수준 (%)	150 미만	53 (24.9)	5 (2.9)	2 (0.6)	6 (2.1)
	150-300 미만	94 (44.1)	31 (18.0)	55 (16.7)	61 (21.4)
	300-450 미만	39 (18.3)	59 (34.3)	149 (45.2)	102 (35.8)
	450 이상	27 (12.7)	77 (44.8)	124 (37.6)	116 (40.7)
평균소득		249.0 a	420.4 b	404.1 b	403.2 b

IV. 연구결과 및 논의

* 학생, 주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4.1 재무관리 가치관의 유형화

재무관리 가치관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직교회전 방식을 이용하여 주상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무관리 가치관은 총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2개의 요인은 총 분산의 46.7%를 설명하였다. 각각의 요인들은 요인 적재치가 .40 이상인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요인 1은 4개의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설명분산이 24.4%로 개인재무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즐거움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여주었으므로, “현재지향 재무관리 가치관” 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총 분산의 22.4%를 설명하였고, 성공적인 인생, 윤택한 경제생활 등 미래의 재무적 성공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여주었으므로,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 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2> 재무관리 가치관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내용		요인 적재치	아이겐 값
요인 1 현재지향 재무관리 가치관	① 나는 벌어들인 돈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보다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0.738	1.950 (24.4%)
	② 나는 아직 은퇴를 대비한 노후설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0.731	
	③ 나는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0.639	
	④ 나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때문에 보험에 드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0.612	
요인 2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	① 나는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715	1.793 (22.4%)
	② 나는 예산만 잘 세워두어도 윤택한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0.684	
	③ 나는 재무관리를 잘 하기 위해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670	
	④ 나는 가구주의 실직, 장애 등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0.480	
			3.743 (46.8%)

KMO= .728, Barlett's test 결과 $\chi^2=909.648$ (df=28, sig=.000)

4.2 사회계층과 세대간 재무관리가치관의 차이분석

4.2.1 재무관리가치관의 사회계층간 비교

재무관리가치관을 유형화한 2개의 요인에 대해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을 비교하였다(〈표 4〉). 그 결과, 사회계층별 현재지향 재무관리가치관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의 경우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사후검정 결과 저소득계층에서 재무관리 가치관의 미래지향성이 낮게 나타나 가설 1(“소비자의 사회계층에 따라 재무관리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 지지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미래지향 재무관리가치관 수준이 3점 이상 (3.95점)으로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에 비해 미래지향 재무관리가치관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재무관리 가치관 요인들의 사회계층간 평균차이

(N=1,000)

		N	평균	표준 편차	F	Duncan	Scheffe
현재지향 재무관리가치관	저소득계층	109	3.454	0.638	1.754	a	a
	중간소득계층	756	3.336	0.690		ab	a
	고소득계층	135	3.296	0.737		b	a
	전체	1000	3.344	0.691			
미래지향 재무관리가치관	저소득계층	109	3.945	0.478	3.551*	a	a
	중간소득계층	756	4.049	0.473		b	ab
	고소득계층	135	4.106	0.481		b	b
	전체	1000	4.045	0.476			

*p<.05, **p<.01, ***p<.001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4.2.2 재무관리가치관의 세대간 비교

재무관리가치관을 유형화한 2개의 요인에 대해 베이비붐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에코세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값을 비교하였다(〈표 5〉). 그 결과, 현재지향 재무관리가치관과 미래지향 재무관리가치관 모두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지향적 재무관리가치관의 비교분석 결과, 에코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재무관리의 현재지

향성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재무관리가치관의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X세대의 미래지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재무관리 가치관 요인들의 세대간 평균차이

(N=1,000)

		N	평균	표준 편차	F	duncan	scheffe
현재지향 재무관리가치관	베이비붐 이전	213	3.474	0.676	12.486***	a	a
	베이비붐 세대	172	3.439	0.639		a	a
	X세대	330	3.384	0.710		a	a
	에코 세대	285	3.142	0.671		b	b
	전체	1000	3.344	0.691			
미래지향 재무관리가치관	베이비붐 이전	213	3.972	0.470	5.159**	a	ab
	베이비붐 세대	172	4.016	0.477		a	ab
	X세대	330	4.124	0.465		b	b
	에코 세대	285	4.026	0.480		a	ab
	전체	1000	4.045	0.476			

*p<.05, **p<.01, ***p<.001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4.2.3 세대 효과와 사회계층 효과의 이원분산분석

세대 변수와 사회계층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두 개의 독립변수로 구분되는 각 집단 내의 관측치의 수를 살펴본 결과, 이원분산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다(<표 5>).

<표 5> 사회계층과 세대의 교차표

		세대구분				전체
		베이비붐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에코 세대	
사회계층	저소득	빈도 82	8	5	14	109
	%	38.5%	4.7%	1.5%	4.9%	10.9%
중간소득	빈도	119	132	284	221	756
	%	55.9%	76.7%	86.1%	77.5%	75.6%
고소득	빈도	12	32	41	50	135
	%	5.6%	18.6%	12.4%	17.5%	13.5%
전체	빈도	213	172	330	285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먼저 세대와 사회계층의 현재지향 재무관리 가치관과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에 대한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각각 <표 6>, <표 7>과 같다. 두 분석 결과 모두 주효과 가운데 세대 변수의 주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와 사회계층의 상호작용항의 영향력 또한 유의 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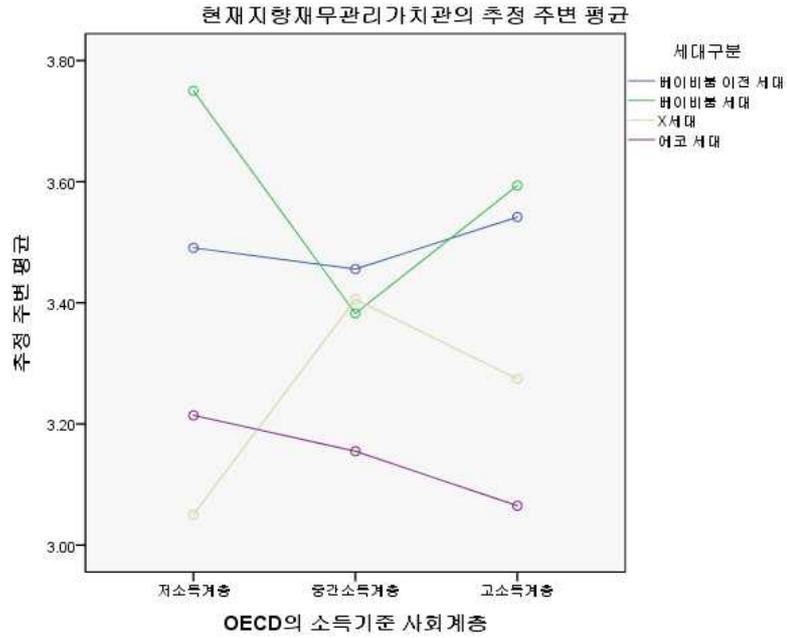
<표 6> 사회계층과 세대의 현재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세대	9.032	3	3.011	6.515***
사회계층	.053	2	.026	.057
세대 × 사회계층	3.493	6	.582	1.260
오차	456.546	988	.462	
a. R 제곱 = .044 (수정된 R 제곱 =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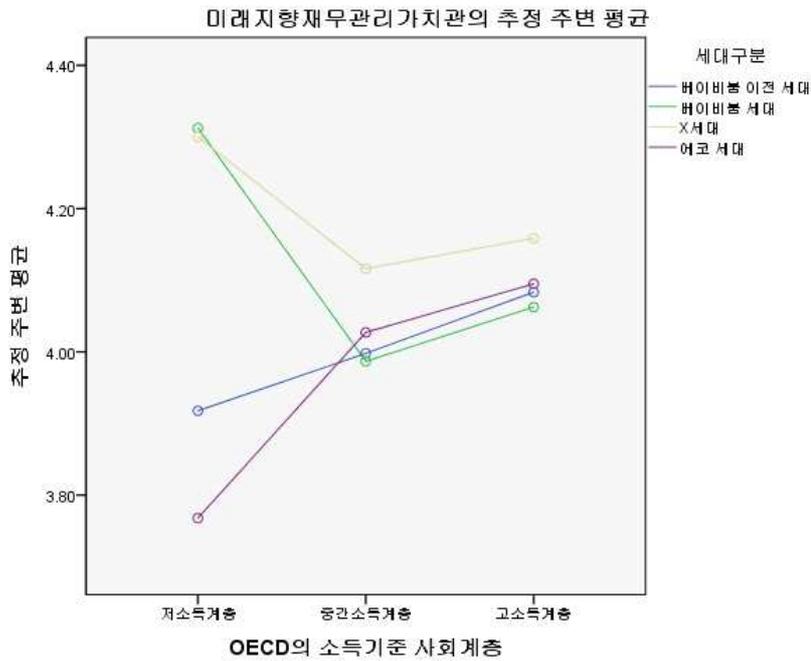
<표 7> 사회계층과 세대의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세대	1.956	3	.652	2.932*
사회계층	.445	2	.222	1.000
세대 × 사회계층	2.002	6	.334	1.501
오차	219.685	988	.222	
a. R 제곱 = .027 (수정된 R 제곱 = .017)				

<그림 1> 사회계층과 세대에 따른 현재지향 재무관리 가치관



<그림 2> 사회계층과 세대에 따른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



4.3 사회계층과 세대간 재무관리행동의 차이분석

앞서 살펴본 재무관리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각 세대의 재무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바, 재무관리행동을 각각 재무목표관리행동, 가계수지관리행동, 저축행동, 금융투자행동, 신용카드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사회계층별 실천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표 8〉). 분석 결과, 가계수지 관리행동과 보험관리행동을 제외한 재무관리행동의 전 영역에서 사회계층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사후 검정 결과 저소득층의 실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8〉 사회계층별 재무관리행동 비교

특성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전체	F
N		109	756	135	1,000	1,000
재무목표 관리행동						
목표수립과 점검	M SD	2.908 a 0.996	3.142 b 0.932	3.282 b 1.027	3.135 0.956	4.704**
가계수지 관리행동						
가계부기록	M SD	2.569 a 0.994	2.759 a 1.047	2.748 a 1.195	2.737 1.063	1.538
선저축 후지출	M SD	3.055 a 0.989	3.233 a 0.947	3.163 a 1.087	3.204 0.972	1.734
저축행동						
정기적 저축	M SD	2.936 a 0.895	3.389 b 0.986	3.467 b 1.042	3.350 0.994	11.191***
노후대비 저축	M SD	2.578 a 0.906	2.766 ab 0.971	2.904 b 1.139	2.764 0.991	3.281*
투자행동						
금융상품 투자	M SD	2.165 a 0.855	2.437 b 0.912	2.526 b 1.064	2.419 0.932	5.109**
신용관리행동						
결제마감일 준수	M SD	3.608 a 1.147	3.972 b 0.926	4.164 b 0.911	3.959 0.960	10.512***
위험관리행동						
보험관리행동	M SD	2.716 a 1.046	2.802 ab 0.970	2.956 b 1.036	2.813 0.988	1.988
비상자금 보유	M SD	3.037 a 0.922	3.198 a 0.970	3.482 b 1.014	3.219 0.977	7.025**

*p<.05, **p<.01, ***p<.001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다음으로 각각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세대간 참여빈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표 9〉).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의 재무관리 행동 수준이 높으며, 베이비붐 이전 세대와

에코 세대의 재무관리 행동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세대별 재무관리행동 비교

특성		베이비붐 이전 세대 (1955 -1964)	베이비붐 세대 (1955 -1963)	X세대 (1964 -1978)	에코 세대 (1979 -1994)	전체	F
N		213	172	330	285	1,000	1,000
재무목표 관리행동							
목표수립과 점검	M SD	3.028 ab 0.976	3.174 bc 0.933	3.315 c 0.894	2.983 a 0.991 a	3.135 0.956	7.453***
가계수지 관리행동							
가계부기록	M SD	2.639 a 1.035	2.855 b 1.063	2.839 b 1.017	2.621 a 1.121	2.737 1.063	3.486*
선저축 후지출	M SD	3.193 ab 0.974	3.262 b 0.947	3.327 b 0.907	3.035 a 1.037	3.204 0.972	4.904**
저축행동							
정기적 저축	M SD	3.169 a 0.956	3.436 b 0.938	3.594 b 0.871	3.151 a 1.117	3.350 0.994	13.719***
노후대비 저축	M SD	2.803 b 1.018	2.959 b 0.920	2.894 b 0.954	2.467 a 0.991	2.764 0.991	13.260***
투자행동							
금융상품 투자	M SD	2.249 a 0.835	2.494 b 0.889	2.585 b 0.965	2.309 a 0.955	2.419 0.932	7.707***
신용관리행동							
결제마감일 준수	M SD	3.838 a 1.027	4.000 ab 0.952	4.121 b 0.778	3.833 a 1.072	3.959 0.960	6.063***
위험관리행동							
보험관리행동	M SD	2.742 ab 0.978	2.837 bc 0.870	3.012 c 0.995	2.621 a 1.016	2.813 0.988	8.643***
비상자금 보유	M SD	3.296 b 0.962	3.343 b 0.957	3.306 b 0.916	2.986 a 1.031	3.219 0.977	7.801***

*p<.05, **p<.01, ***p<.001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층을 구분한 OECD방식의 사회계층 변수와 출생 코호트에 따라 베이비 붐 이전, 베이비붐, X, 에코세대를 구분한 세대 변수에 따라 재무관리 가치관과 행동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재무관리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미래지향이 타계층에 비해 낮다는 기존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사회계층과 세대 가운데 재무관리가치관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세대” 이

며, 한국사회에서 재무관리가치관에 관한 세대와 사회계층의 상호작용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다시 서술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의 재무관리 가치관은 크게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재무관리 가치관의 현재지향성과 미래지향성은 서로 다른 차원이며, 따라서 현재지향성이 낮다고 해서 미래지향성이 높다거나, 현재지향성이 높다고 해서 미래지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단,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누적 변량이 낮아, 현재지향-미래지향과 같은 두 차원의 재무관리 가치관 외 다른 차원의 재무관리 가치관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더 많은 수의 문항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의 재무관리 가치관 유형을 탐색한다면 보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층과 같은 사회계층 변수에 따라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인구학적 연령집단에 따른 세대 차이에 따라 현재지향 재무관리 가치관과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계층 차이와 세대 차이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상호작용은 없었으며, 재무관리 가치관 격차에 작용하는 주효과 변수 가운데 유의미한 것은 세대 차이 뿐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각 사회계층의 재무관리 스타일이 고착화되는 양상보다 각 세대의 재무관리 스타일이 분화되는 양상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재무관리 가치관과 재무관리 행동에 관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 재무관리 분야의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소득기준)과 에코세대(세대기준)를 선정하였다. 먼저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은 다른 사회계층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이 중간소득계층, 고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그에 따라 목표 수립 및 점검과 같은 재무목표 관리행동, 정기적 저축 및 노후대비 저축과 같은 저축행동, 펀드,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 투자행동, 신용관리행동, 보험관리 및 비상자금 보유와 같은 위험관리행동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의 재무관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들로 하여금 미래지향성의 감각을 획득하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에코세대의 경우, 현재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미래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은 베이비붐 세대 등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재무관리행동의 전 분야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실천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 집단 가운데 가장 젊은 연령층인 에코세대의 현재 지향성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무관리에 있어서 에코세대의 성향이 그들의 소비성향과는 상이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88만원 세대”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현재의 에코세대에 대하여 추후 연구에서 현재지향 재무관리 가치관이 낮은 이들 집단의 소비자 재무관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끝>

참고문헌

계선자·정미선(2007),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123-144.

김미린·홍은실(2010),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13-129.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김우성·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김효정(2005),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3(7), 79-91.

남기찬(2013),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의 인구동향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432, 1-6.

라채린·이현경(2013), “에코세대의 취업변화와 자살생각,” **보건행정학회지**, 23(4), 370-376.

린쉬에·조향숙·김시월(2014), “한국과 중국 대학생소비자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행동의 관련성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87-116.

박경숙·서이중·김수중·류연미·이상직·이주영(2013), **세대 갈등의 소용들이: 가족·경제·문화·정치적 메커니즘**, 서울: 다산출판사.

박재홍(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호, 10-34.

박상미·허경옥(2012),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가치, 소비행동, 소비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5(3), 139-157.

박영균·박영신·김의철(2010),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 심리특성 차이 분석: 생활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59호, 79-113.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손지연 · 이경아(2014),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손지연(2015),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소득 및 소비생활 특성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65호, 27-44.

이성림(2006), “소비자학 분야의 소비문화 연구에 대한 소고,” **소비문화연구**, 9(2), 127-149.

이은희 · 김경자 · 이성림 · 유현정 · 차경옥 · 이영애 · 이준영(2015), “세대별 가계경제 구조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2), 197-227.

이지혜 · 주소현(2013), “대학생의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4), 45-70.

정서린 · 장윤옥(2007), “고용, 소득관련 변수와 경제적 불안에 따른 주부의 재무관리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5(10), 59-71.

조수현(2012), “조절초점이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중서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9-14.

통계청(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보도자료(2012. 8. 2.).

최현자(2010),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 2000-2009 년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1(2), 41-64.

함인희 · 이동원 · 박선웅(2001), **중산층의 경제성과 소비문화**,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80 집. 서울: 집문당.

허경옥 · 박귀영(2013), “소비자의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도가 재무정보탐색, 가계재 무관리행동 및 경제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6(1), 1-26.

Banfield, E. C. (1974). *Unheavenly city revisited*. Little, Brown

Bengston, V. L. (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3), 358-371.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276-32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ayne, R. K. (2005).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overty*. aha!Process, Inc.

Zimbardo, P. and Boyd, J. (2008). *The time paradox: The new psychology of time that will change your life*.